

장세영 태권도 라이트급 이혜은 사격 공기소총 2연패



장세영(광주체고 3)이 태권도 남고 라이트급에서 금빛 둘러차기를 성공시키며 2연패를 달성했고, 이혜은(한국체대)은 사격 여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금 타켓을 명중시키며 역시 대회 2연패를 이뤘다. 레슬링에서는 김현규(광주체고 3)가 남고 부 그래프코만형 120kg급에서 역시 지난해에 이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명훈(광주시청)은 보디빌딩 일반부 라이트헤비급에서 지난해 2위 실력을 씻으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는 이날 현재 금 4개, 은 5개, 동 8개를 추가해 금 23개, 은 20개, 동 22개를 획득했고, 전남은 금 7개, 은 8개, 동 12개를 더해 금 31개, 은 32개, 동 39개를 확보했다. 장세영(광주체고 3)은 20일 영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남고 라이트급 결승에서 충북 이성재를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명훈도 경산 시민회관에서 열린 보디빌딩 남자일반 라이트헤비급에서 뛰어난 근육을 뽐내며 지난해 2위의 실력을 날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 동신고는 문경시민 정구장에서 열린 정구 남고부 단체전에서 인천고를 3-0으로 누르고 올 시즌 5관왕 도전에 나섰고, 여고부 동신여고는 서울 무학여고를 3-0으로 제압하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복싱에서는 대학부 박관수(한국체대 4)가 라이트 웰터급, 서창현(한국체대 4)이 미들급에서 동메달을 확보했으며 일반부 김상호(광주선발)는 웰터급에서 동메달을 확보하고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하지만 예전에서 열린 양궁 여고부에서 금메달이 기대됐던 국가대표 이택영(광주체

고 2)이 개인전마저 탈락해 이번대회 노메달의 부진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전귀애·유화정·이경화(이상 고흥실고)는 이날 경주 한화콘도볼링장에서 열린 여고부 3인조전에서 2천522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궁도에서는 전남선발이 단체전에서 금과녁을 명중시켰고, 이영연(한국체대)은 레슬링 그래프코만형 60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장창하(한국가스공사)는 태권도 남자일반부에서 박영민(한국체대)은 육상 남자대학부 1,5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목포대는 김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농구 남자일반부에서 인천재능대를 90-80으로 제압하고 4강에 진출했고, 화순실업고는 배드민턴 남고부 8강전에서 경기광명복고를 3-1로 꺾었다.

축구 남고부 우승후보 광양제철고는 충남 천안농고를 1-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향해 순항했고, 핸드볼 여고부 백재고도 인천선화여상고를 21-17로 꺾고 금메달 후보다운 실력을 발휘했다.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히어로

“5인조도 금메달 목에 걸 터”

볼링 여고부 3인조 금 고흥실고

“우승하게 돼 너무 기쁩니다. 22일 5인조전에서도 최선을 다해 금메달을 목에 걸겠습니다”

20일 경주 한화콘도볼링장에서 열린 제 87회 전국체전 볼링 여고부 3인조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경화(고흥실고 1)·유화정(고흥실고 2)·전귀애(고흥실고 1)는 금메달의 기쁨과 함께 오는 22일 있을 5인조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고흥실업고등학교는 올 3월에 팀을 창단해 1년도 안돼 전국체전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기쁨이 두배다.

지난 3월 팀 창단 후 곧바로 대통령기대회 3인조전 우승을 일궈 일찌감치 볼링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지만 16개 시·도가 전력을 다하는 전국체전 우승으로 그 실력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하지만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연 운운할 수 없다. 이들 3인방은 고흥여중 선·후배와 친구사이로 중학무대 최강자로 군림하면서 준비된 우승 후보들이었다.

팀의 맏인인 유화정은 중학부 1~2위를 다투는 기대주였지만 중3때 부상으로 1년간 치료에 전념한 후 지난해 복귀했다. 전귀애와 이경화는 중학교 1학년때부터 국내 여자중학부 최고수로 인정받아 왔다.



20일 경북 경주시 한화콘도 볼링장에서 열린 여고부 3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고흥실고 유화정, 전귀애, 이경화(왼쪽부터).

김천=최재호기자 choi@kwangju.co.kr

이들 3인방의 꿈은 태극마크를 달고 3명이 함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다.

팀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파이팅을 주도하는 유화정은 “중학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서로의 느낌을 알 수 있어 함께 운동하는게 너무 편하다”며 “집중력만 보완하면 내년부터 전관왕도 가능하다”고 활짝 웃었다.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일 포항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 -100kg급 남대부 개인전에 출전한 전남의 전중환(흰색)이 제주대표 조한택을 공격하고 있다. 김천=최재호기자 choi@kwangju.co.kr

■ 전국체전 이모저모

전남, 기대않던 사격·테니스서 금

○전남이 사격과 테니스에서 오랜만에 금메달을 획득해 싱글빙글, 김태경(여천고 3)은 20일 김천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린 남고부 테니스 개인전에서 우승, 지난 1986년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이후 테니스 고등부에서 20년 만에 전국정상을 차지했다. 또 이날 포항실내사격장에서 열린 사격 남대부 100m공기소총 개인전에서는 최재중(동신고)이 지난 1999년 이후 7년 만에 정상에 올라 기쁨을 맞았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이 두 종목이 그동안 너무 부진해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금메달을 획득해 선수단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다”며 활짝 웃었다.

볼링 단체전 경기장 ‘파이팅’ 최고

○이번 87회 전국체전기간 동안 41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지만 남·여볼링 단체전 경기장의 ‘파이팅’ 단연 최고.

20일 볼링 여자일반 단체전(3·5인조전) 경기가 펼쳐진 포항 시민볼링장에는 선수들이 스트라이크를 기록할 때마다 강하고 높은 톤으로 ‘파이팅’을 외치는데다 서로서로 손을 부딪히며 팀마다 독특한 기합을 넣고 있어 경기장은 온통 파이팅과 기합소리로 의사소통이 안될 정도.

볼링 관계자는 “볼링선수들은 열 레인에서 타 시도 선수들과 시합을 하기 때문에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팀마다 독특한 기합을 넣고 있다”며 “특히 여자선수들의 기합이 대단하다”고 설명.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미 프로야구(MLB)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7차전에서 메츠를 물리치고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은 뒤 그라운드로 물러 나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인트루이스 WS행

디트로이트와 패권다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2년 만에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에 올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패권을 다투게 됐다. 세인트루이스는 20일(한국시간) 뉴욕의 세이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7전4선승제) 최종 7차전에서 선발 투수 제프 수판의 호투와 9회 터진 아더 플리나의 결승 2점 홈런을 앞세워 3-1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세인트루이스는 시리즈 4승3패로 지난 2004년 이후 2년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디트로이트와 22일부터 7전4선승제로 우승컵을 놓고 싸운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1984년 월드시리즈를 제패했고, 지난 2004년 월드시리즈 때 보스턴 레드삭스에 4전 전패로 분투를 삼켰던 세인트루이스는 1982년 이후 24년 만에 우승에 다시 도전한다.

세인트루이스는 광범한 1-1 동점 행진이 계속되던 9회 1사 1루서 물리나가 상대 투수 에런 해일먼의 가운데로 낮게 흐르는 초구를 토타, 시원한 좌월 2점 홈런을 쏘아올려 승부를 갈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토트넘 이영표

로마행 재추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영표(29·토트넘 핫스퍼)가 지난 여름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워 거부했던 이탈리아 AS 로마행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로마 일간지 ‘일 로마니스타’ 인터넷판은 20일(한국시간) ‘이영표가 다시 로마를 원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이영표가 AS로마행을 다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영표가 토트넘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불가사의한 이유로 AS로마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영표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로마 구단과 다시 접촉하고 있으며, 이적은 내년 1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토트넘도 여전히 이영표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트넘과 AS로마 양 구단은 지난 8월 이영표의 이적에 합의했지만 이영표가 로마 구단과 협상 막판에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 이탈리아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영표는 토트넘에서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늘어 이적 거부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로마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김재박 감독 LG 간다

프로야구 트윈스가 김재박(52) 현대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LG는 20일 김재박 감독과 계약금 5억원, 연봉 3억5천만원 등 3년간 총 15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연봉 3억5천만원은 8개 구단 감독 가운데 최고 금액으로 종전 최고는 2억5천만원.

김재박 감독은 ‘사령탑 연봉 3억원 시대’를 연 첫 주인공이 됐다.

LG는 현대유니콘스를 11년간 지휘하며 4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궈내는 등 탁월한 지도력을 선보인 김 감독을 초특급으로 대우하며 ‘우승 청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했다.



14년 만에 친정팀에 복귀한 김 감독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준비해 무적 LG시대를 열겠다. LG구단이 추구하는 힘있는 야구, 깨끗한 야구, 신바람 야구를 부활시켜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1일(토)

▲제87회 전국체육대회(13 : 25·KBS1)

▲한국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13 : 50·MBC)

▲프로농구(SK-KCC)(14 : 50·Xports, SBS스포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토트넘-웨스트햄)(20 : 00·MBC ESPN)

22일(일)

▲PGA투어 후나이 클래식 3R(05 : 00·

SBS스포츠)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1차전(08 : 20·Xports)

▲제87회 전국체육대회(13 : 40·KBS1)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14 : 00·KBC)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Utd-리버풀)(21 : 00·MBC ESPN)

▲이탈리아 세리에 A축구(AC 밀란-팔레르모)(22 : 00·KBS SKY Sports)

23일(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레딩-아스날)(00 : 00·MBC ESPN)